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윤석민이 돌아온다

어깨 부상 회복... 내일 퓨처스리그 출전

“올 목표는 내 역할 하는 것”



KIA 에이스 윤석민이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어깨 통증으로 시즌 출발이 미뤄졌던 윤석민이

실전 무대를 위한 준비를 끝냈다. 지난 12일 82개의 공을 던지며 불펜 피칭을 소화했던 윤석민은 14일 캐치볼을 하며 컨디션 점검을 마무리 했다.

14일 다시 한번 불펜 피칭을 할 예정이었지만 16일 강진에서 열리는 넥센과의 퓨처스 리그 출전에 대비해 캐치볼로 대체했다.

윤석민은 “어깨 통증도 없고 컨디션도 좋다. 부상에서는 완벽히 회복했다”고 밝혔다.

빠르면 16일 안방에서 열리는 LG와의 홈 3연전이 복귀 무대가 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윤석민은 퓨처스 리그에서 먼저 실전 감각을 가다듬기로 했다.

윤석민은 “컨디션은 문제가 없는데 재구가 좋지 못하다. 마음대로 공이 들어가지 않는다. 공을 던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경기를 하면서 감각을 찾아야 할 것 같다. 팀 경기를 보면 빨리 복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마음은 급하지만 잘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석민의 마지막 피칭은 지난 3월2일, 네덜란드와의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개막전에서 선발로 등판해 공을 던졌던 윤석민은 대회 이후 어깨 통증을



윤석민

호소하면서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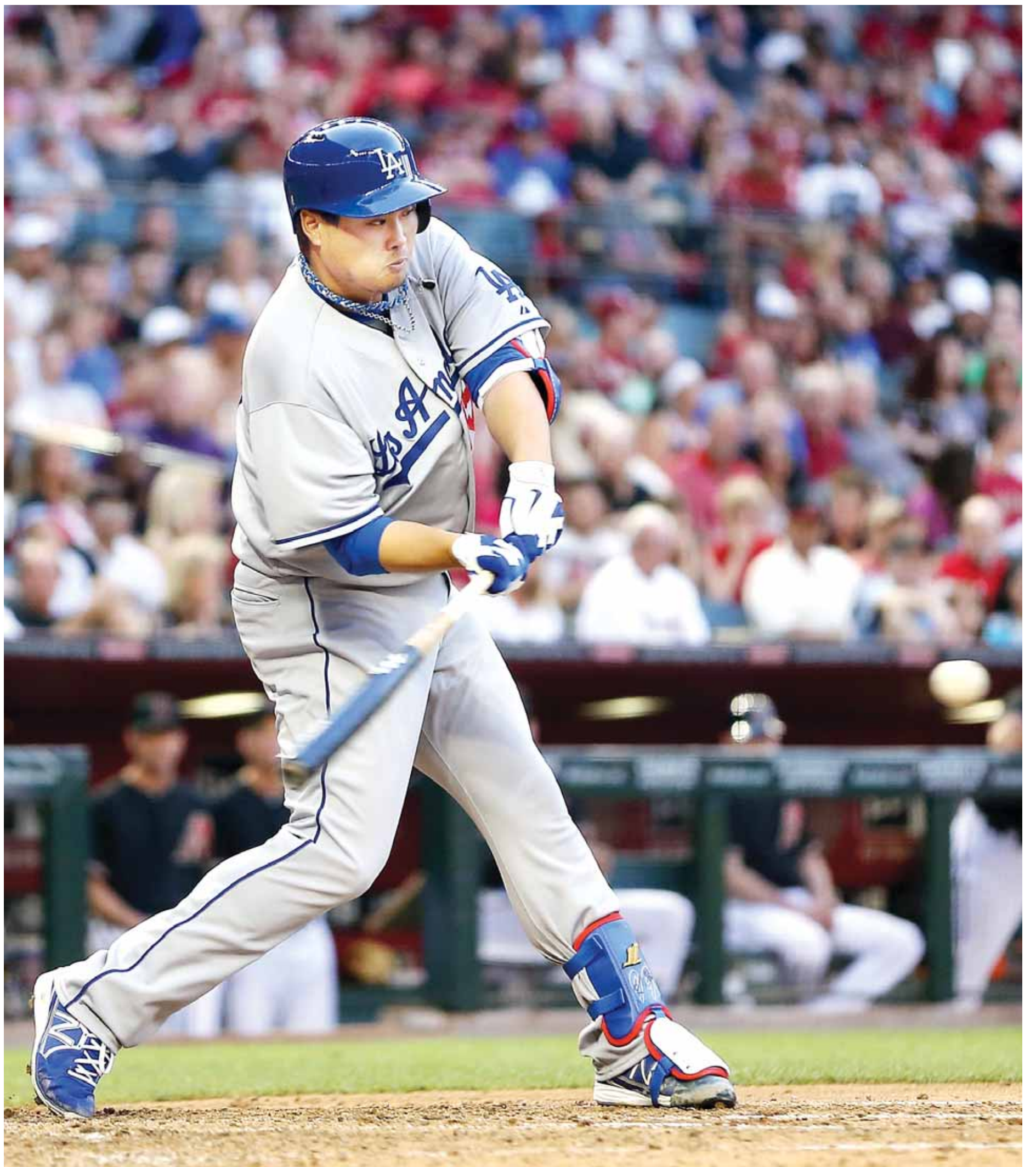
스프링 캠프에서의 연습경기과 시범 경기를 모두 건너 뛴 만큼 ‘갑작식’이 속제로 남았다. 윤석민은 넥센전 등판 이후 연습경기를 통해 복귀를 위한 최종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윤석민은 “올 시즌 특별한 목표는 없다. 아프지 않고 시즌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1군에 올라가서 내 역할을 잘하는 것이 목표라던 목표다. 준비를 잘해서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베이브 류스’

〈3안타 휘두른 류현진에 美 언론이 메이저리그 전설의 타자 베이브 류스에 빗대 붙여준 별명〉



미국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14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와의 원정 경기에서 5회 상대 선발 이인 케네디를 상대로 안타를 때려내고 있다. 6이닝 3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된 류현진은 타석에서도 3타수 3안타 1득점을 기록하며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연합뉴스

순천 효천고 6연승... 광주일고는 5승1패

고교야구 전라권 주말리그

순천 효천고가 6연승 행진을 벌였다. 효천고는 14일 KIA 함평 전용구장에서 열린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라권 5주차 경기에서 화순고를 2-1로 꺾고 6연승을 내달렸다.

1회초 상대 유격수 송구실책으로 출루한 톱타자 이승민이 김만수의 적시타로 홈을 밟았다. 5회말 화순고가 이윤균의 볼넷으로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희생 번트와 땅볼로 2사 3루, 폭투가 나오면서 승부는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8회 이변에는 효천고가 폭투로 기회를 잡았다. 선두타자 신관식의 볼넷에 이어 폭투로 무사 2루, 이승민과 신운수의 희생타가 연속해서 나오면서 2-1이 됐다.

효천고 선발 차명진은 추가 실점없이 9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면서 6연승을 확정했다. 9이닝 2피안타 2사사구 10탈삼진 1실점의 호투였다.

광주일고도 2승을 추가하면서 전라권 1위를 위한 마지막 불씨를 살렸다. 광주일고는 인상고와 전주고를 상대로 각각 8-1(7회), 17-1(5회)콜드게임승을 거두며 5승1패를 기록했다. 광주일고는 20일 효천고와의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군산상고와 동성고 그리고 진흥고도 1승을 추가했다. 군산상고(4승2패)는 화순고를 8회 7-0 콜드로 꺾었고, 동성고는 전주고를 6-0으로 누르고 3승3패를 기록했다. 진흥고도 인상고와의 10회 연장 승부처기 끝에 4-1 승을 거두며 3승3패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알론소 F1 중국대회 우승

2위 키미 라이코넨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가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 원(F1) 그랑프리 중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알론소는 14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13 F1 UBS 중국 그랑프리에서 5.451km의 서킷 56바퀴(총길이 305.066km)를 1시간36분26초945에 달려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 키미 라이코넨(핀란드·로터스) 보다 10.1초를 앞선 기록이다. 루이스 해밀턴(영국·메르세데스)이 선두에 12.3초 뒤진 3위로 레이스를 마쳤고, 페넬은 해밀턴에 0.2초 뒤져 4위에 올랐다.

시즌 4라운드 경기는 19일부터 사흘간 바레인 사키르에서 열린다.

한편 4회째를 맞는 코리아 그랑프리는 지난해보다 1주일 앞당겨 10월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영암 F1경주장에서 진행된다.

/상하이=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가 14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13 F1 UBS 중국 그랑프리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뒤 페라리 깃발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LA 류현진 애리조나전 ‘북치고 장구치고’

투 - 6이닝 9K 3실점... 시즌 2승

타 - 2루타 포함 3안타 1득점... 타율 0.429

‘괴물’ 류현진(26·LA 다저스)이 공수에서 원맨쇼를 선사하고 시즌 2승과 한·미 통산 100승을 동시에 달성했다.

류현진은 14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와외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 빅리그 한 경기 개인 최다인 삼진 9개를 속아내며 6이닝 3실점으로 역투했다.

애리조나 강타선을 산발 6안타로 묶은 류현진은 6-1로 앞선 7회 안타 2개를 맞고 무사 1.2루에서 마운드를 로날드 벨리사리오에게 넘겼다. 벨리사리오가 적시타를 맞고 주자 2명을 모두 홈으로 보내 류현진의 실점과 자책점은 3점으로 늘었다.

불펜이 흔들려 턱밑까지 추격당하기도 했으나 팀이 7-5로 이기면서 류현진은 2승째를 수확했다. 지난해까지 한국에서 7년간 통산 98승(52패)을 올린 그는 빅리그 첫 원정 승리의 감격과 함께 개인 통산 100승 고지를

밧았다. 최근 콜로라도에서 이적한 베테랑 포수 라몬 에르난데스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류현진은 1회부터 정교한 직구 컨트롤을 뽐내며 애리조나 타선을 쉽게 요려했다.

최고속 148km짜리 직구를 필두로 체인 지업, 슬라이더, 커브 4개의 주무기를 섞어 총 107개를 던졌고 68개를 스트라이크로 넣었다. 첫 타자 A.J. 폴락에게 낮게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던져 삼진을 낚고 산뜻하게 출발한 류현진은 헤라르도 파라, 마르틴 프라도 두 타자를 각각 2루수 땅볼, 중견수 뜬공으로 잡고 이닝을 마쳤다.

3회 아웃카운트 3개를 모조리 삼진으로 채우는 등 3회까지 삼진 6개를 속아낸 류현진은 4회 첫 고비를 맞았다. 1사 후 4번 풀 플드스미트에겐 중견수 펜스 뒤 벽 상단을 때리는 2루타를 내준 뒤 미겔 몬테로를 볼넷을 보내 1.2루 위기에 놓인 류현진은 후속 타자를 좌익수 뜬공, 삼진으로 잡고 한숨을 돌렸다. 후투하던 류현진은 5회 어렵게 폭투로 실점의 빌미를 줬다. 선두 클리프 페넬턴을 우전 안타로 내보낸 폭투를 범해 무사 2루에 몰렸다. 애리조나는 보내기 번트에 이은 내야 땅볼로 류현진에게서 첫 점수를 빼앗았다.

류현진 이닝별 투구내용 및 경기결과

이닝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득점	안타	실점
LA다저스	0	0	0	1	2	3	0	0	1	7	14	0
애리조나	0	0	0	0	1	0	2	2	0	5	11	0



류현진은 0-0이던 3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애리조나 선발 이인 케네디의 바깥쪽 직구(시속 150km)를 밀어쳐 우익수 키를 훌쩍 넘기는 2루타를 때렸다. 선두 타자로 나온 5회에도 케네디의 직구(143km)를 두들겨 깨끗한 중전 안타로 1루를 밟았다.

3-1이던 6회 2사 주자 없는 타석에서도 케네디의 바깥쪽 직구(146km)를 결대로 밀어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날렸다. 크로퍼드의 2루타로 3루에 안착한 류현진은 맷 캠프의 2타점 좌전 적시타 때 홈을 밟고 빅리그 첫 득점을 올렸다.

공수 양면에 걸친 맹활약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홈런 타자 베이브 류스에 류현진을 빗대 기사 제목을 “베이브 류스(Babe Ryuth)”가 7-5 승리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공수 양면에 걸친 맹활약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홈런 타자 베이브 류스에 류현진을 빗대 기사 제목을 “베이브 류스(Babe Ryuth)”가 7-5 승리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